

## [중국 정부 및 기타 동향]

- 9월 29일 오전 중국 해사국 정보: 황해 보하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군사훈련<sup>1)</sup>
  - ▶ 30일까지 중국 4개 해역에서 동시 군사훈련 훈련 진행 어선 통행 금지령
- 9월 28일 저녁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汪文斌)의 발언 및 답변
  -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남중국해 군사화,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밝힘<sup>2)</sup>
- 중국 황해 양식시설 건설 관련 언론 보도 및 해양대학 기고문
  - ▶ 중국 해양대학 황해 냉수괴 친환경 양식기술 연구와 국가심해 개발전략에 대해 소개<sup>3)</sup>

## □ 해사국

- 30일까지 중국 전 해역(보하이, 황해,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매일 실탄사격훈련 예정
  - ▶ 황해: 황해 남쪽 유역에서 오전 8시 ~ 18시까지 실탄사격훈련
  - ▶ 남중국해: 난사군도 부근 오전 7시 ~ 18시 30분까지
  - ▶ 동중국해: 오전 7시 ~ 18시

## □ 외교부

- (중국 CCTV 기자) 미국 국무원이 어제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중국은 난사군도 군사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했다고

1) 출처: <https://baijiahao.baidu.com/s?id=1679084285902984540&wfr=spider&for=pc>2) 출처: [https://www.fmprc.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t1819422.shtml](https://www.fmprc.gov.cn/web/wjdt_674879/fyrbt_674889/t1819422.shtml)3) 출처: [https://www.eol.cn/tech/dongtai/202009/t20200923\\_2015693.shtml](https://www.eol.cn/tech/dongtai/202009/t20200923_2015693.shtml)<http://news.ouc.edu.cn/2020/0921/c91a103098/page.htm>[https://mbd.baidu.com/newspage/data/landingshare?context=%7B%22nid%22%3A%22news\\_9882412460382168234%22%7D&isBdboxFrom=1&pageType=1&rs=1839271644&ruk=jfdJow3Oxwrf5cwE4hkfsQ](https://mbd.baidu.com/newspage/data/landingshare?context=%7B%22nid%22%3A%22news_9882412460382168234%22%7D&isBdboxFrom=1&pageType=1&rs=1839271644&ruk=jfdJow3Oxwrf5cwE4hkfsQ)

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난사군도는 중국 고유 영토이다. 중국이 자기 영토에 건설하는 것은 난사군도의 각 민간사무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각 지역과 국제사회에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국이 책임져야 하는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더 잘 이행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중국이 난사군도 관련 도서에 필요한 국방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국제법이 부여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중국 주권범위 내의 사무이다. 이는 합리적이고 이치에 부합하며 군사화와는 관련이 없다. 각국이 각자의 영토에 방위시설을 배치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 미국은 종종 ‘군사화’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남중국해 군사배치와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그 해상 패권제도를 옹호하려는 하나의 변명이다. 중국은 미국 함정과 전투기가 자주 남중국해에 밀집하여 활동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많은 군사 훈련과 정찰활동을 하고 남중국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이야말로 ‘군사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다.

최근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아주 잘 이용하여 중국과 다른 국가들을 갈라놓고 있다. 미국 국내의 과격한 성향을 가진 인사들은 중국을 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이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로 증명이 되었다. 국제사회와 각 지역 국가들은 이에 대해 경계하여야 하며 미국의 일부 전쟁광들은 동아시아의 혼란을 조장하고 남중국해 정세를 복잡하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여야 한다. 중국은 국가주권과 영토안보를 수호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역내 국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일부 인사들에게 이유 없이 중국을 공격하고 비난하거나 망언을 하지 말라고 알려주고 싶다.

- (한국 연합뉴스 기자) 보도에 따르면 왕이 국무위원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여 여러 당면 사무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 하였는데 사실 확인을 하고 싶다.

- 중국과 한국은 정치, 외교 등의 루트를 통한 소통이 매우 활발하며 밀접하다. 양국 협상단과 같은 교류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은 적시에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 □ 황해 양식시설 관련 언론사 및 해양대학 동향

### ○ (중국해양대학/양광망 기사) 산둥성 칭다오시, 곧 심해 친환경 양식 실험구역 건설 예정

- 중국 해양대학 수산대학 동창린(董双林)교수에 따르면 황해 양식시설 건설이 산업 시범단계에 들어섰음
-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은 8월 칭다오시와 남황해 해역에 총면적 533.6km의 전국 최초 국가 심해 양식 실험구역 건설을 승인함
- 교수가 개발한 황해 냉수괴 수역 친환경 연어 양식기술은 산업을 통하여 복제할 수 있고 보급이 가능한 심해 양식 실험 모델임
- 냉수괴 연어 양식기술은 동창린 교수가 2014년 내놓은 기술로 양식 종을 선택할 수 있고 묘종 배양이 가능하며 병충해를 방지하는 등의 기술을 적용
- 2018년 전잠식 심해 철제 가두리 양식 딥블루 1호를 건설하여 성공적으로 양식기술 적용을 증명함<sup>4)</sup>
- 2019년 12월 24일 황해 냉수괴 양식 실험 모델은 전문가의

---

4) 지난번 송부자료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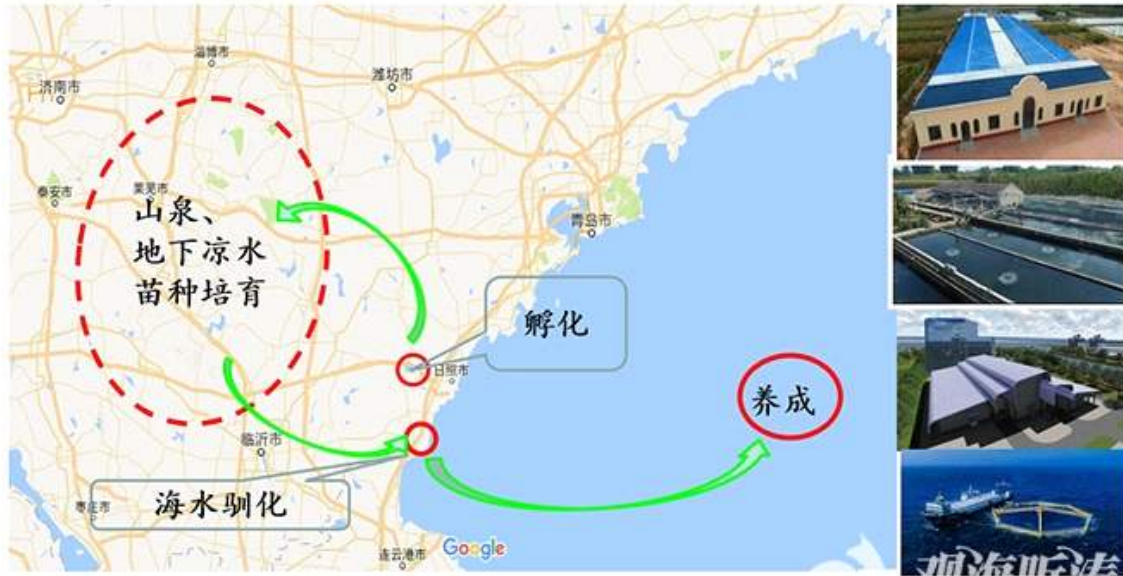
검수를 통과해 연어의 육질, 크기, 활력 등의 부분에서 규모화 생산이라는 소기 목표를 달성

- 실험구 내, 황해 냉수피의 특성에 따라 1+4 배치를 활용해 해상 핵심단지, 심해양식연구서비스기지, 심해양식 종묘 배양핵심단지, 심해양식가공 및 첨단장비 제작기지의 5가지 기지 및 핵심단지 건설예정
- 청다오시 해양발전국은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등의 부서와 심해 양식의 심사, 재정, 융자 등의 부문의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35년 예상 생산량 1000억위안(한국돈 약 17조)의 세계에서 가장 큰 심해 양식기지를 건설할 예정



△ 동창린 교수 연구단이 황해 냉수피 해역에서 양식한 연어

## (沂蒙) 山 (黄) 海接力养殖模式



硬头鲜, 淡水10个月 (150g) + 海水14~16个月 = 24~26个月 (>5kg)

### △ 황해 릴레이 양식모델

(순서대로)

\* 작은 동그라미 ; 르자오(일조) 시(市), 부화

\*\* 빨간 점선부분에서 묘종배양

\*\*\* 바닷물 귀화작업

\*\*\*\* 양식